

나를 찾아서 떠난

# 노재의 산티아고 순례기

Part. 1

글. 노상천 아리랑국제방송 국장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2024년 4월 18일, 나는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출발 2024년 10월 14일, 귀국 2024년 12월 1일.



순례길에 가져갈 물품들



42리터 배낭

10여 년 전부터 생각으로만 산티아고를 그리다가 본격적으로 2년 전부터 인터넷 및 관련 카페에서 들어가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표를 질러버렸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EI Camino de Santiago)이 막연한 동경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비행기 표를 끊은 순간부터 순례길은 시작이다. 일정을 짜고 물품 목록과 구매 등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의 일정을 참고하여 나만의 일정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종로 5가와 다이소에서 순례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시간이 술술 흘러간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순례길은 무게와의 싸움이다. 무게 100g을 줄이기 위해 많이 고민하게 된다. 과연 꼭 필요한가부터 더 가벼운 것은 없는가, 무게를 줄이느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빼고 나면 필요할 것 같아 다시 넣고 결국 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출발일이 되었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을 맞아 배낭 하나와 파우치 백을 메고 공항으로 출발, 1시간여 탑승시간을 대기하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리행 비행기 표를 산 지 6개월이 지나고 파리를 향해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다는 감회는 정말 뭐라 표현을 할 수 없게 남달랐다.



파리 CDG 공항에서 RER B 기차를 타고 파리 시내로 가는 중



공항에서의 대기과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

## 순례의 시작

순례길은 무수히 많다. 프랑스 길, 북쪽 길(Camino del Norte), 은의 길(Via de la Plata), 프리미티보 길(Camino Primitivo), 포르투갈 길, 르 푸이 앙 벨레이(Le Puy-en-Velay)길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다.

매년 35,000명 이상의 순례자들은 프랑스 길을 선택한다.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이 가장 잘 갖춰져 있어서 대부분의 초보자가 선택하는 코스이며 나도 프랑스 길을 선택했다. 전체 코스의 길이도 780km 정도이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리아에서부터 시작하는 100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1주일 정도 걷는다.

순례길에서 만난 캐나다의 친구는 올해만 세 번째라고 했다. 2월에 포르투갈 길, 5월에 프리미티보 길, 그리고 10월에 프랑스 길. 그중에서도 프리미티보 길이 제일 좋았다고 사진을 보여주며 나에게도 그 길을 걸어보라고 권해 주었다. 순례길 끝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께서는 피스테라 길을 마치고 바로 포르투갈 길을 걷는다고 하셨다.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일정은 파리에 도착해서 파리 2박 3일, 루르드 1박 2일 등 5일을 보내고 18일 시작하여 31일 동안 걷기로 했다. 중간 큰 도시에서 하루씩 연박을 해서 33일간 순례길을 걷고 산티아고에서 하루를 쉬 다음 1주일 정도 포르투를 여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이것도 계속 바뀌면서 마지막 날까지 바뀌었다) 여행 기간은 총 49일.



그론즈 앱에서 본 순례길 루트



31일 일정의 일정표, 앱에서 지도를 확대하면 도시가 표시된다

### 산티아고 순례 일정표

|                                                                     |                                                                             |
|---------------------------------------------------------------------|-----------------------------------------------------------------------------|
| <b>Day 1.</b> Saint-Jean-Pied-de-Port → Orreaga/Roncesvalles 25.6km | <b>Day 16.</b> Carrión de los Condes → Terradillos de los Templarios 26.6km |
| <b>Day 2.</b> Orreaga/Roncesvalles → Zubiri 21.5km                  | <b>Day 17.</b> Terradillos de los Templarios → El Burgo Ranero 30.6km       |
| <b>Day 3.</b> Zubiri → Pamplona 20.3km                              | <b>Day 18.</b> El Burgo Ranero → León 37.3km                                |
| <b>Day 4.</b> Pamplona → Puente la Reina/Gares 24.0km               | <b>Day 19.</b> León → San Martín del Camino 25.8km                          |
| <b>Day 5.</b> Puente la Reina/Gares → Estella/Lizarrza 21.9km       | <b>Day 20.</b> San Martín del Camino → Astorga 24.0km                       |
| <b>Day 6.</b> Estella/Lizarrza → Torres del Río 29.0km              | <b>Day 21.</b> Astorga → Foncebadón 25.9km                                  |
| <b>Day 7.</b> Torres del Río → Logroño 20.0km                       | <b>Day 22.</b> Foncebadón → Ponferrada 27.3km                               |
| <b>Day 8.</b> Logroño → Nájera 29.6km                               | <b>Day 23.</b> Ponferrada → Villafranca del Bierzo 24.1km                   |
| <b>Day 9.</b> Nájera → Santo Domingo de la Calzada 21.0km           | <b>Day 24.</b> Villafranca del Bierzo → O Cebreiro 28.4km                   |
| <b>Day 10.</b> Santo Domingo de la Calzada → Belorado 22.7km        | <b>Day 25.</b> O Cebreiro → Triacastela 21.1km                              |
| <b>Day 11.</b> Belorado → Agés 27.4km                               | <b>Day 26.</b> Triacastela → Sarria 18.3km                                  |
| <b>Day 12.</b> Agés → Burgos 23.0km                                 | <b>Day 27.</b> Sarria → Portomarín 22.4km                                   |
| <b>Day 13.</b> Burgos → Hontanas 31.1km                             | <b>Day 28.</b> Portomarín → Palas de Rei 25.0km                             |
| <b>Day 14.</b> Hontanas → Boadilla del Camino 28.5km                | <b>Day 29.</b> Palas de Rei → Arzúa 27.3km                                  |
| <b>Day 15.</b> Boadilla del Camino → Carrión de los Condes 24.6km   | <b>Day 30.</b> Arzúa → O Pedrouzo 19.2km                                    |
|                                                                     | <b>Day 31.</b> O Pedrouzo → Santiago de Compostela 20.0km                   |

## D-1일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다. 루르드에  
서 10시 20분 기차를 타고 바욤에 도  
착 15시 30분 생장(Saint-Jean-Pied-  
de-Port)행 기차를 타는 일정인데 바  
욤에서부터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  
고 있었다. 문제는 생장행 기차를 타  
고 가는 중에 발생했다. 토사가 선로

를 덮쳐서 열차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기다리라고 하고는 1시간이 지난 뒤에  
버스를 수배해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다.

도착해서 순례자 사무실에 도착하니  
19시 30분 등록을 하고 예약한 숙소  
에 들어가니 20시가 넘었다. 저녁을  
못 먹은 것은 둘째고 문제는 내일 피

레네산맥을 넘을 때 간식을 못 샀다는  
것이다. 일정대로라면 도착해서 마트  
에 들어서 내일 먹을 물과 빵 과일 초  
코바 등 산을 넘을 때 필요한 간식을  
사는 것이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모든 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것  
이다.



비가 온 바욤 강



첫날 숙소에서의 아침



열차 시간표



멈춰 선 열차

## 10월 18일 1일 차 출발

2024년 10월 18일 숙소에서 주는 아  
침을 먹고(사립, 미리 신청) 다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도 배낭을 챙  
기면서 마트가 문을 열고 간식을 사면  
9시 이후나 출발 가능해서 먼저 출발하

라고 사정을 말했다. 다들 배낭에서 치  
즈며 물 과일 초코바 등을 꺼내 나에게  
주었다. 첫날부터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포옹을 하였다.

그렇지만 고도 1,450m, 거리 25km 피  
레네를 넘는 7시간의 여정은 정말로

혹독 그 자체였다. 어차피 우기인 것을  
알고 일정을 선택한 거라 감안했지만  
비와 강풍 그리고 추위는 내가 왜 여기  
를 왔나 하는 후회를 첫날부터 하게 만  
드는 구간이었다. 참 힘든 하루였다.



생장 출발 지점에서 바온 도착지까지의 거리와 고도 표



하산 길

판초 우의를 썼지만, 우비 바지를 입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신발, 바지, 내의 등이 다 젖고 온몸이 비와 습기에 축축해졌다. 배낭 안까지 젖어서 신발은 물론 여권, 지폐 등도 다 젖었다. 이렇게 순례길 첫날을 비와 함께 시작하였다.

# Day 1



고도 1,200m 지점에서의 풍경



론세스바예스 공립 알베르게(산티아고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



10월 19일 2일 차

## 수비리(Zubiri)

론세스 바예스(Roncesvalles)에서 수비리로 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고 자갈과 뽕족한 바위가 드러난 내리막길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발가락에 멍이 들었다. 등산화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내리막길에 발이 앞으로 쏠려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첫날 만난 일행 중 한 명은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가지고 간 끈으로 묶은 후 팜플로나(Pamplona)까지 가서 신발을 새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론세스 바예스에서 수비리 가는 길

# Day 2



타파스

10월 20일 3일 차

## 팜플로나(Pamplona)

팜플로나는 소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유명하며 타파스(핀초스) 거리 또한 유명하다. 대성당에서 내려오면 산 페르민 축제의 황소가 달리는 거리와 기념비도 있다. 팜플로나 핀초 거리에서는 시금치와 새우 크레페, 푸아그라, 시지, 버섯 타르트 등과 같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팜플로나 타파스 거리

# Day 3

10월 21일 4일 차

뿌엔떼 라 레이나(Puente la Reina)

가는 길, 용서의 언덕



4일 차, 뿌엔떼 라 레이나 가는 길, 용서의 언덕



4일 차, 뿌엔떼 라 레이나

Day 4



6일 차, 이라체수도원 와인 꼭지



대만 청년, 일본 아가씨와의 저녁 식사

Day 6

10월 29일 12일 차

## 부르고스(Burgos)

부르고스는 오래되고 큰 도시로 성당이 유명하다. 원래 부르고스에서 하루를 연박하고 레온(León)에서도 하루를 연박해서 31일 일정표에 이틀을 더해 33일의 일정을 만들었는데 부르고스와 레온에서 비가 왔다. 부르고스에서 연박을 하면서 빌바오(Bilbao)에 가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고 오려 했는데 비 때문에 포기하고 일정을 당겨서 걸었다.



아헤스(Ages)를 출발, 바르에서의 조식



# Day 12



부르고스 시내와 공립 알베르게에서의 입실 대기 배낭 줄



부르고스 대성당(Catedral de Burgos)의 낮과 밤

지면의 사정으로 아쉽지만 '노새의 산티아고 순례기'는 Part. 2로 이어진다. 3월호에서는 레온부터 산티아고 입성까지, 그리고 피스테라 길의 여정과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순례길에 대한 정보로 마무리된다.



# To Be Continue